

## 추억거리

70년대 중반 시스템화 초기에 심혈을 기울였었던 자재관리 업무를 처음 시작했을때의 이야기이다. 장치산업인만큼 전기, 기계장치들이 많아서 자재목록을 만드는 일이 처음부터 어렵게 진행되었다. 자재번호를 미국의 FSN인 11자리를 표준으로 하여 분류하는 code structure를 사용하였는데 기존의 장비번호, spare part No. 등 공급자가 제공한 번호체계(6-13 자리)를 그대로 쓰자는 막강한 실력자(?)인 현업 부서장과 마지막 협의를 계속하는데 아침부터 시작해서 일과가 끝날때까지도 매듭이 나지를 않고 야간 마라톤 회의에 가서야 결말이 났다. 현업부서의 고집 겨루기는 대단하였지만 결국 우리의 안이 수용되었다. 총론에서 표준화는 동의하면서 막상 자기가 담당한 현장용은 기존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주장이었지만 끈질긴 협의로 마무리가 된 것이다. 일방적인 강요가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필요성을 설득(?)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그 당시만 해도 code의 중요성이 그렇게 심각하게 업무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지만 이 code의 분류가 시스템 성공의 가장 큰 요소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카드를 작성, 즉 실적을 올리기 위해 기기를 분배하는 등의 우수계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목록카드 작성을 매우 중요한 기초 투자로 수행하였으며 아울러 본사에서도 전담팀(대리급7-8명)을 구성해 촉진한 작



黃圭宣

(주)쌍용컴퓨터 상무이사

업의 결과는 매우 바람직한 성과를 잉태하여 현재 시스템의 근간을 이룩하였다고 볼 수 있다.

code 때문에 생긴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하자면 당시 모든 물품의 청구는 S/N(Stock No. 11자리)로 기입하게 되었고 청구량이 재고량을 초과하면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구매지시가 나가고 이 구매지시는 그대로 업체를 통해서 청구 공장에 납품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생산공장에서 청구하지 않은 철재 앵글 한트럭이 납품 지시서와 함께 납품된 적이 있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하였지만 창고과에서는 청구하지 않은 물품이라 반품처리 해야 한다고 큰소리가 나왔다. 특히 이때의 공장에서는 재고 감축 운동이 한창 벌어지고 있을 때였었다. 사고의 원인을 찾으려고 각 전표를 역추적 하였는데 알고 보니 key punch 과정에서 물품 번호의 code 두 자리가 잘못 key in된 것으로 후에 조사되었다. 마침 그 후 철재 앵글이 필요한 때라 입고처리는 되었지만 번호를 잘못 key in하는 바람에 못이 앵글로 바뀌는 사태를 초래한 것이었다. 본 컴퓨터실에서는 이를 기화로 code의 중요성, data의 중요성에 대한 대대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전사적인 code의 mind up에 많은 기여를 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던 적이 있었다.